마음공부란 모든 굴레 벗어나 자유와 영원한 안식 얻기 위한 것



마음공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태완 지음
침묵의 향기/2만2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한국 불교 역사상, 마음공부 세계의 역사상 이렇게 공부 전반을 아우르는 방대한 문답집은 없었다. 법을 보는 투철한 안목을 갖춘 선지식의 답변은 대개 일반적인 예상을 벗어난다. 이 책도 익숙하고 뻔한 대답이 아닌, 깊은 통찰에서 나오는 신선하고 놀라운 대답으로 풍성하다. 마음공부, 선 공부를 하면서 공부의 진정한 효험을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큰 도움이 될 독보적인 책이다. 마음공부란 모든 굴레를 벗어나 끝없는 자유와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한 공부다. 이 공부는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것,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떠나 새롭고 낯선 길을 걷는 것이기에 모르는 것 투성이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 길을 가는 공부인에게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끝까지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줄 좋은 안내자가 필요하다.

마음공부의 길을 걷는 공부인들의 진지한 질문과 선지식(善知識)의 친절한 답변이 옹골지게 담긴 책이 출간되었다. 〈마음공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은 무심선원 김태완 원장이 2002년부터 2020년까지 구도자들의 갖가지 물음에 답한 글 가운데 326개를 선별했다.

그리고 주제별로 분류해, '마음공부란 무엇인가?, 믿음과 발심, 깨달음과 수행, 견해에서 벗어나기, 마음공부의 바른 길, 마음공부의 어려움, 마음공부와 사회생활, 체험과 그 뒤의 공부, 별별 질문들' 등 아홉 개의 장으로 묶었다. 무려 19년에 걸친 질의응답을 엮었으므로 대다수 구도자가 품을 만한 질문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공부인을 위한 거의 모든 문답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부제는 초심자를 위한 입문편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깊이 있는 질문과 답변이 많아서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유익한 책이다. 법을 보는 안목이 꽤 갖추어진 사람들을 위한 '심화편'도 추후 출간할 예정이다.

무심선원 김태완 원장은 조사선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고 선(禪)을 공부하여 불법(佛法)을 깨쳤으며, 무심선원을 설립하여 20여 년 동안 마음공부를 지도하고 있다. 선어록과 경전 번역서, 설법서 등 수십 종의 저서도 꾸준히 출간하는 등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까닭에 문하에서 불법에 눈을 뜬 사람이 꾸준히 배출되고 있다. 마음공부의 길은 무수한 오해로 점철된 길이며, 끝없이 오해를 바로잡는 길이다. 대다수 공부인이 알고 있다고 믿는 것도 알고 보면 오해인 경우가 부지기수다. 오래 공부해도 진정한 효과를 보는 사람이 드문 이유 중 하나는 이런 오해와 무지로 인해 잘못된 길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승이 공부를 돕는 일 중 상당 부분은 오해를 바로잡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 책도 마찬가지다. 경전과 선어록 등을 근거로 수많은 오해를 교정해 주며, 바른 관점을 갖추어 효과적으로 공부하도록 안내한다.

마음공부 길에서 묻는 326개 질문과 답
눈 밝은 선지식의 올바른 공부 안내서

수많은 오해와 잘못된 관점 바로 잡는다
바른 관점 갖춰야 공부 효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행자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오매일여'다. 깨어 있을 때나 깊은 잠을 잘 때나 화두가 똑같이 들리는 것이 오매일여이며, 이 상태를 거쳐야 깨닫는다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동정일여, 몽중일여를 지나 이런 상태에 이르기 위해 애써 수행한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 33조사와 1,700선사 가운데 동정일여, 몽중일여, 오매일여를 거쳐서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분은 아무도 없으며,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다. 그리고 간화선 창시자인 대혜 종고 스님의 일화에 오매일여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대혜 스님이 깨닫기 전에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었다. 오매일여에 관한 답변 중 일부를 보자. "대혜는 애초 깨어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의식(意識)과 마음가짐을 잠잘 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원오 선사는 그것을 헛된 생각 즉 망상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뒤에 원오의 한마디 말을 듣고서 문득 깨달아 망상에서 벗어나고서야 비로소 깨어 있을 때와 잠잘 때가 한결같다는 경전의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깨달음은 의식(意識)이라는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잠잘 때나 깨어 있을 때 늘 하나가 된다는 말을 들으면, 흔히 생각하기를 자나 깨나 내가 주인공이 되어 객관인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내 의지대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것이 곧 자나 깨나 하나가 된다는 말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이 책은 '마음공부란 무엇인가요?'라는 물음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해야 깨달을까요?'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아트만은 무아와 다릅니까?'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화두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화를 내지 않을까요?' '이 체험이 깨달음일까요?' '체험한 뒤에는 어떤 공부를 합니까?' 등등 3백여 개의 다양한 질문과 답변으로 이뤄져 있다.

이 책은 다양한 주제로 긴 세월에 걸쳐 이루어진 답변을 모은 것이지만, 내용이 산만하지 않으며 잡다한 개념이나 지식을 주지도 않는다. 대신, 구도자들이 온갖 분별망상을 벗어나 둘이 없는 불이(不二)의 진실에 눈을 뜨도록, 자신에게 본래 갖추어진 참된 마음을 깨닫도록 시종일관 이끌어 간다. 한국 불교 역사상, 마음공부 세계의 역사상 이렇게 공부 전반을 아우르는 방대한 문답집은 없었다. 법을 보는 투철한 안목을 갖춘 선지식의 답변은 대개 일반적인 예상을 벗어난다. 이 책도 익숙하고 뻔한 대답이 아닌, 깊은 통찰에서 나오는 신선하고 놀라운 대답으로 풍성하다. 마음공부, 선 공부를 하면서 공부의 진정한 효험을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저자 **김태완은?**

부산 무심선원 원장이며, 동국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중국 조사선의 연구〉로 부산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원에서 선학(禪學)을 전공하는 동안 스승인 박홍영 거사를 만나 선을 공부했으며, 수년 전부터는 무심선원을 열어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저서와 역서로는 〈선으로 읽는 금강경〉 〈선으로 읽는 대승찬〉 〈선으로 읽는 신심명〉 〈선으로 읽는 반야심경〉 〈마조어록〉 〈조사선의 실천과 사상〉 등이 있다.

서양철학적 사유와 비판적 시각으로 불교철학 논하다



통도사승가대학의 불교철학강의
홍창성 지음
운주사 펴냄/1만5천원

1,400년 전통의 불보종찰 통도사에서 서양철학 교수가 풀어내는, 진중하면서도 깊은 철학적 사유와 유쾌 발랄한 강의! 저자는 불교의 전통적 가르침과 의례가 살아 숨 쉬며 전승되는 한복판에서 서양철학적 사유와 비판적 시각으로 불교철학을 논한다. 이처럼 이 책은 현대 서양철학의 언어와 논리, 사유방식으로 불교철학을 해석함으로써 불교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서양철학 전공하고 불교철학 강의하는 철학교수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철학 교수인 저자는 서양철학을 전공하고서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불교철학을 강의하는 독특한 이력을 보여준다. 이런 강의를 토대로 몇 년 전에는 〈미네소타주립대학 불교철학 강의〉를 펴냈다. 철학으로서 불교를 강의한다는 것은 그가 불교를 '종교'로서 뿐만 아니라 '철학'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말해준다. 철학이란 그 어원처럼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때, 그에게 불교는 '지혜'의 종교, 즉 철학이기도 한 것이다. 불교가 철학인 이상 그 언어와 논리, 사유체계는 비판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그가 현대철학자로서 불교를 바라보는 기본인식이다. 그리고 그는 철저히 비판적 시각으로 불교의 사상과 교리를 통찰하고, 불교야말로 존재와 사유에 대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가르침임을 증명한다.

저자, "불교는 종교뿐 아니라 철학이다"
비판적 시각으로 불교사상과 교리 통찰
불교, 존재사유의 과학적·합리적 가르침

불보종찰 통도사승가대학 학인스님들과 논강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강의하던 저자가 이번에는 통도사승가대학의 학인스님들을 대상으로 불교철학을 강의했다. 승가대학은 전통적으로 강원이라 불리던 승려 교육기관으로, 학인스님들은 4년 동안 경전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승려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훈련한다.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국내 불자들과 직접 소통할 기회가 적었던 저자는, 뜻밖에도 승려교육의 현장에서, 학인스님들과 함께 호흡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펼쳐보이고 피드백을 받는 소중한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불교에 문외한인 미국 학생들과 달리, 이미 어느 정도 불교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한 학인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다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주고받는 대화 역시 격이 다르다.

무아서 정토까지, 현대 형이상학과 불교의 만남

미네소타주립대학에서의 불교철학 강의가 서양철학적 소양을 지닌 반면 불교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였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불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소양을 지닌 반면 서양철학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학인스님들이 대상인 만큼, 접근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저자가 서양철학을 전공한 만큼 사유방식이나 접근방식, 사용하는 용어 등이 전통적인 교수법과 다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서양철학으로 불교하기'라고 하겠다. 독자들은 글을 읽어가면서 '불교를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구나!' 하고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저자 **홍창성 교수는?**

서울대 철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브라운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저자는 지난 20여 년간 미국 미네소타주립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형이상학과 심리철학, 불교철학 분야의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다.

저자는 지난 2015년에 시작되어 국내 불교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깨달음 논쟁' 당시 누구보다 많은 분량(8편)의 글을 기고하며 논쟁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이후 월간 〈불광〉 〈불교문화〉를 비롯한 매체에 불교철학 관련 글을 연재하였으며, SNS에서 'Yumaa Hill'이라는 필명으로 국내 독자들과도 소통하고 있다. 현응 스님의 저서 〈깨달음과 역사〉(불광출판사)를 부인이자 동료 교수인 유선경 교수와 공역하였고, 함께 저술한 〈생명현상과 불교〉의 출간을 앞두고 있다. 현재 Buddhism for Thinkers(사유하는 사람들을 위한 불교)를 집필 중이기도 한 저자는 마음과 물질세계의 관계를 주제로 한 전공 분야 논문을 영어와 한글로 발표해 오고 있으며, 불교의 연기의 개념으로 동서양 형이상학을 재구성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